

전통 혼례복, 고국으로 온다

6·25 이후 민간서 사용돼
독일 수도사가 수집 '단령'
국립민속박물관에 인계



'혼례용 단령' 앞면

뒤 독일인 보나벤투라 슈스터 수사(Br. Bonaventura Schuster·한국명 주광남)에 의해 수집됐다.

결감은 비단이고 안감은 1960년대에 유행한 인조비단(비스코스레이온)을 사용한 단령으로 6·25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운 경제 사정

으로 인해 개량화된 복식이다. 당시 시대 상황을 알려줄 수 있는 귀한 자료로 평가된다는 게 재단

측 설명이다.

보나벤투라 수사는 1984년에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으로 복귀한 뒤 1987년 선교박물관에 해당 단령을 기증했으며 1990년 다시 왜관수도원으로 돌아와 수도생활을 하고 있다.

테오필 가우스(Theophil Gaus) 상트 오틸리엔 수도원 선교박물관장은 지난해 12월 이 단령의 유물상태를 고려해 한국에서 연구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재단에 전하고 지난달 정식 기증했다. 이로써 해당 선교박물관은 조선시대 보군이 입었던 '면피갑'을 2018년 국내에 기증한 데 이어 한 번 더 문화재를 반환했다.

복식사 전문가들은 이 단령이 관복용 단령이 아닌 6·25전쟁 이후 민간에서 사용했던 남성 혼례용 단령으로 오늘날 국내에 남아 있는 것이 많지 않아 희소 가치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준석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학예연구관은 "전시로 인해 직사광선에 장기간 노출됐고 현지 수장고 시설이 열악해 직물 손상이 매우 심했다"며 "앞으로 1960년대 혼례복 연구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뉴시스

“시비 갈등 멈추자 위기 극복 지혜 모아야”

조계종, 코로나19 확산에

대한불교조계종이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시비와 갈등을 멈추고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여 국가적 비상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고 매 순간을 끝단타임이라 여기며 위기의 상황을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권을 비롯한 모든 분들에게서는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정치권에도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인 금곡스님은 6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원행스님 명의의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담화문’을 발표했다.

금곡스님은 불교적 세계관인 ‘인드라망’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인드라망의 모습을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금곡스님은 “불교에서는 우리가 사는 세계를 인드라망의 세계라 부른다.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돼 온 세상으로 퍼지는 법의 세계를 뜻하는 말이다. 이와 같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인드라망과 같이 서로가 연결돼 서로를 비추어주는 세계다.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응원을 보내는 마음이 바로 인드라망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이번 담화문에서 금곡스님은 조계종이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 당국에 적극



대한불교조계종 감염병 비상대응본부장인 총무부장 금곡스님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금곡스님은 “현재 재단법인 아름다운 동행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극심한 지역과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대구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주민을 위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조계종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감염병 비상대응본부를 구성해 이에 대응해 왔다. 조계종은 3월20일까지 범회 등 대중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모두 취소하고 구호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조계종은 1억3000만원 상당의 생수 500ml 20만개를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한다. 조계종은 12일 오후 2시 수성구청에서 전달식을 가질 예정이다.

또 오는 10일부터 이달 말까지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및 강북삼성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등 종로구 소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에게 사찰음식 도시락을 지원한다.

조계종은 현재 아름다운동행과 함께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모금은 4월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모금액은 대구·경북 지역에 지원될 예정이다. /뉴시스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 발표

김아람 ‘난각 모란꽃’ 대상 선정

남원시는 지난 6일 제23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 수상작을 발표했다.

대상은 김아람 씨의 ‘난각 모란꽃’이 선정되었으며, 심사는 옷칠, 목산반, 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6명의 심사위원들과 공개 모집된 일반인 참관단의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가 이루어졌다.

대상인 ‘난각 모란꽃’은 심사위원들로부터 난각기법의 정교함과 바림기법을 적용한 우수한 옷칠 작업으로 작품 완성도가 매우 높다는 극찬을 받았다.

이밖에도 옷칠목공예부문의 금상에는 김하린 씨의 ‘주머니 호 건칠화병’, 같이분야 금상에는 박석규 씨의 ‘수연담’이 선정되었다.

곽대웅 심사위원장(전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교수)은 “한층 높아진 작품자들의 수준에 감탄했으며, 일상 여부를 떠나 작품 자체 하나하나가 작가 분들의 피땀 어린 노



김아람작 ‘난각 모란꽃’

력이 맺은 결실”이라고 전했다.

한편, 수상작품은 오는 4월부터 8월까지 남원과 서울, 전주 등에서 순회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상작은 남원시 홈페이지 광고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정부 “각 종단 대표 만나 종교행사 자제 협조요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각 종단 대표들을 만나 종교행사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 겸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이 각 종단 대표들을 직접 만났다”며 “여러 경로로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방역 당국이 당부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및 외출 자제, 종교행사 등의 모임 자제 요청의 연장선이다. 앞서 종교행사, 단체활동에서 코로나19가 전파된 사례가 다수 나왔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단체 활동 최소화 및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강조해 왔다. 이에 종교행사 자제 차원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문체부 장관이 각 종단 대표를 직접 만났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이 업무를 범부처가 대응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부를 통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문체부 장관께서 각 종단 대표들을 직접 만나셨고 여러 경로로 협조를 지난주에도 진행했다”고 말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어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경우에 취해야 하는 가장 우선적인 조치 두 가지 중 하나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대중집회, 단체활동 최소화 및 개인 위생수칙을 통한 1차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주말 대규모 행사 또는 집회 참석 자제를 당부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이번 주말 대규모 행사나 집회 참석을 최대한 자제해달라”며 “가능하면 접촉이나 이동을 최소화해 추가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뉴시스

민예총 “코로나19 같은 위기 지원

‘예술활동 매뉴얼’ 만들어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같은 사회적 위기에서 예술가·예술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한국민족예술단체총연합(한국민예총)은 5일 발표한 성명서 ‘코로나 19 추경에서 소외된 예술가와 예술 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촉구한다’를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이번과 같은 감염병의 유행이나, 사드 배치로 인한 중국과의 문화교류 축소 등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이 이제는 준비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공립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의 폐관 등과 같이 예상되는 공연, 전시, 행사, 예술 교육 등의 취소에 따른 ‘비상시 예술가와 예술 활동 지원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뉴시스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